

이덕일의 '역사의 창'



고려거란전쟁과 실증사학

KBS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이 방영 초기부터 역사왜곡 논쟁에 휘말렸다. 고려 북방 국경선을 지금의 함경도 남쪽까지 축소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제작진은 억울할 것이다. 실증사학이라 자화자찬하는 기존 역사학계의 견해를 따랐는데 식민사학을 추종했다고 비판받으니 말이다.

고려의 행정구역은 5도 양계로서 서북쪽 북방강역을 북계(北界), 동북쪽 북방강역을 동계(東界)로 삼았다. 고려 북방강역에 대해서 현재 사용하는 '한국사교과서' 들은 모두 압록강에서 함경남도 안변까지 동남쪽으로 비스듬하게 그른 사선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 지도에 따르면 고려는 평안북도 거의 전역과 함경북도 전역 및 함경남도 대부분을 차지하지 못했다. 고려는 한반도의 2/3밖에 차지하지 못한 불품없는 나라였다. 고려의 동북방 강역인 동계에 대해서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대체로 함경남도 이남으로부터 강원도 삼척 이북의 지역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는 '한국사교과서'와 같다.

그럼 이런 교과서와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 사료에 맞는지 살펴보자. 동계에 관한 가장 기초 사료는 '고려사, 지리지'다. 고려사 지리지에는 '동계'에 대해서 "동계는 본래 고려의 옛땅이다...비록 연혁과 명칭은 같지 않지마 그 후로부터 말년에 이르러까지 공험 이남에서 삼척(三陟) 이북을 통틀어 동계라 일컫었다.(고려

사, 지리지 동계)"라고 말하고 있다. 고려사의 '공험'을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함경남도 이남'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공험은 공험진을 뜻하는데 고려 장수 윤관이 예종 3년(1108) 여진족을 북방으로 몰아내고 공험진 선춘령에 고려의 강역이라는 뜻의 '고려지경(高麗之境)'이라는 비석을 세운 곳이다. 고려사 지리지는 "공험진은...선춘령 동남쪽으로 백두산 동북쪽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고려사는 백두산 동북쪽 공험진 선춘령에 윤관 장군이 고려 강역이라는 비석을 세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사교과서나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백두산 동북쪽'을 백두산 남쪽 1천여 리의 함경남도 안변으로 표시하고 있다.

공험진이 두만강 북쪽이라는 사실은 조선의 국가기관이나 학자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 '세종실록지리지'는 두만강 경원에서 공험진까지 북쪽으로 정확히 688리라고 적고 있다. 또한 조선의 '동국여지승람'은 "공험진...선춘령은 두만강 북쪽 7백리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조선 후기의 성호 이익(李翼:1681~1763)은 '성호사설'의 '윤관비'라는 글에서 "윤관의 비는 선춘령에 있으니 두만강 북쪽으로 7백리가 되는 곳이다"라고 말했다. 광복 80년이 다 되는 대한민국에서 두만강 북쪽 7백리를 함경남도라고 축소해 가르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역사학계의 주장이 이해가 가지 않으면 그들이 '역사의 신'으로 떠받드는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찾아보면 된다고 여러 번 말했다. 이른바 국사학계(國史學界) (?)의 태두라는 이병도 박사가 "매우 존경할만한 인격자"라고 추앙한 이케우치 히로시(池內宏)는 1923년 '만선(滿鮮)지리역사연구보고'에서 고려 강역을 조작한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러면서 이를 실증사학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실증사학'에 대해서 "역사 연구에 있어서 실증적인 방법을 중시하는 역사학"이라고 정의하면서 "실증사학은 19세기 말부터, 특히 일제시대부터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시라토리(白鳥庫子)·이케우치(池內宏)·아마니시류(今西龍) 등이 대표적인 학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조선총독부 식민사학이 해방 후 실증사학으로 이름을 바꾸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실증사학은 '실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실증사학'을 따르며 객관적인 역사왜곡이 된다.

'고려거란전쟁' 제작진이 지금이라도 빨리 이런 현실과 '진실'을 깨닫고 그동안 역사관을 시정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예이다.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의료칼럼

행복은 현재에 있음을 알려준 환자



정현호 보라안과병원 원장

매일 아침 똑같은 자리에서 일어나 비슷한 패턴의 옷을 걸치고, 익숙한 길을 따라 출근한다. 그리고 어제와 같은 동료들과 함께 진료를 시작한다. 어제와 똑같은 것 같은 하루, 늘 반복되고 바쁜 일상 속 나만의 리프레시 방법 하나.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리는 것이다. 부모님의 희끗해진 흰머리를 떠올리면 마음 한편이 아려오기도 하고, 부쩍 자란 딸아이를 생각할 때면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휩싸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힘을 얻기도 한다.

어떤 날은 환자들에 대한 생각에 잠기기도 하는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보면 문득 떠오르는 환자가 있다. 인생을 살다보면 누구나 '번 아웃'이 올 때가 있다.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여 '번 아웃(burn out)' 글자 그대로 모든 게 다 타버려 심신이 극도로 지친 날들, 내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안과에 합력해 온 세상을 가진 것처럼 기뻐던 순간도

잠시, 하루하루 꾸역꾸역 버티면서 일하던 대학병원 전공의 1년차 여름이었다. 당시 잠이 부족하여 비몽사몽하며 응급실 당직을 하고 있었는데 열 살짜리 여자가 이가 눈을 다쳐 응급실을 찾아왔다. 친구와 장난치던 중 연필심이 눈에 박혔다는 것이었다. 망막 신경까지 손상된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는 작고 어린 몸으로 대견하게도 큰 수술을 여러 차례 이겨냈지만, 안타깝게도 시력 회복은 어려워 보였다.

한 눈이 보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못한 채 아파도 묵묵히 참아냈던 아이, 전공의 1년차 생활에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내가 의사로서 책임감을 넘어 처음으로 환자에게 감정을 이입했던 순간이었다. 앞으로 아이가 겪을 고통, 부모님의 심정을 생각하며 시력이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했던 마음과 달리 예후는 좋지 못했고 내가 의사로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이었다.

시간이 흘러 군의관 복무 3년 후 다시 망막 전임강사로 대학병원으로 복귀하였다. 또 다시 바쁜 나날의 연속에서 우연히 보게 된 차트에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그리고 진료실에 들어온 환자는, 이제는 훌쩍 커고 등학생이 된 그 아이가 분명했다. 아이의 옆에 선 부모님 또한 흰머리가 많아지고, 주름은 늘었지만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진료가 끝난 후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내가

주치의였는데, 기억하니?" 그러자 아이는 기억한다며,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밝고 씩씩하게 웃었다. 너무나 잘 커준 아이에 대한 벅찬 마음에 당시에 하지 못했던 말을 전하고 싶다.

"씩씩하게 잘 커줘서 고마워.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많겠지만, 지금처럼 긍정적으로 밝게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랄게. 너를 빛나게 할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항상 행복하렴."

흔히 의사는 환자를 통해 배운다고 한다.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쌓는 경험과 지식 가치를 일컫는 말로 통용되지만, 내가 만난 환자가 나에게 보여 준 것은 조금 다른 것이었다.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시력 저하, 특히 시각장애 환자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신경질환을 치료하는 망막 전문의로서 더 많이 만나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기에 때때로 그분들의 불편함에 무뎠게 지는 나를 보며 반성하기도 한다. 또한 회복이 어려운 시각장애, 저시력 환자들의 긍정적인 마음을 보고 있으면 행복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에 있음을 느끼기도 한다.

오늘도 나는 내가 만나는 환자를 통해 인생을 배운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현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치료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社說

광주에 세계적 수준 국가 AI 데이터센터 가동

광주시에 언제부터 세계적 수준의 '국가AI데이터센터' (이하 센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센터는 광주 첨단3지구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이하 AI집적단지) 내 핵심시설로, 연면적 3144㎡의 2층 규모다. 광주시는 'AI 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AI 인프라 지원 거점 역할을 하게 될 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명실상부한 한국형 실리콘밸리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광주시는 특히 엔터테인먼트가 자랑하는 최고 성능의 GPU(그래픽처리장치)인 'H100'을 센터에 구축했다. 기업들의 초거대 AI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인데 상용화는 광주시가 처음이다. 초거대 AI는 대용량 연산이 가능한 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한 AI 모델이다. 기존의 AI가 특정분야 데이터를 학습해 그 분야에 맞는 결과물만 낼 수 있었다면 초거대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 만큼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출현할 수 있었던 것도 초거대 AI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대한 구축 비용 때문에 빅테크 기업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광주시가 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 지역은 물론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도 혜택을 보게 됐다.

인공지능(AI) 기술은 어떤 첨단기술보다 지역간 편차가 심하다. 그런 만큼 지자체마다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기술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광주시가 일찌감치 AI 중심도시를 표방하고 나선 것도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인데 이번 센터 서비스를 계기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됐다. 광주시는 센터 서비스를 통해 1000여 개의 AI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유망 AI 기업들이 광주로 하나 둘씩 모여들고 있는 마당에 앞으로는 더 많은 관련 기업이 광주에 터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업 특성상 청년 일자리 창출은 덩이다.

어업철 수요 맞춰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해야

어업인에게 연중 가장 바쁜 시기인 겨울철 '어번기(漁繁忙期)'를 맞아 전남 어촌에서 일손 구하기가 비상이 걸렸다. 어가의 주 수입원인 해조류 수확을 앞두고 인력이 필요한 곳은 많지만 대부분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 어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어업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임시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전남 지자체는 연안 시·군 16곳 중 고흥·해남 등 7곳이지만 올해 상반기 배정된 어가는 471개 였던 반면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어가는 356개에 불과했다. 어가에서 배정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는 1499명이었지만 실제로 고용된 인원은 900명에 그쳐 500여 명이 모자란 셈이다.

더욱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는 매년 상반기(11월)와 하반기(5월)로 나눠 두 차례 배정심사를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해 교육 등 수속 절차를 거쳐 배치하

기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내놓고 고용 기간을 8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확대·운영하고 있지만, 어민들은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인력을 확보하기 힘들고 전문성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급기야 인력에도 시달리는 어민들은 벌금형을 감수하면서 브로커를 통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까지 고용하는 실정이다. 겨울철에 고용할 인력을 여름철에 미리 잡아두면서 재우고, 먹고, 월급까지 주고 있어 형편적 부담까지 감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어업의 특성상 적시기에 일손을 구하고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과 현실의 부조화가 큰 만큼 행정당국은 농어업인의 고심과 손해를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가뜩이나 어려운 어업인의 고충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광주의 핫 플레이스 동명동을 찾을 때면 아쉬운 마음이 들곤한다. 멋들어진 카페나 맛집은 눈에 띄지만 문화공간이 그리 많지 않아서다. 지금은 한 건설회사의 사옥으로 쓰이는 옛 금호문화회관 앞을 지날 때면 아쉬움이 더 커진다. 이 곳이 예전처럼 문화 공간으로 쓰이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마음 때문이다.

1983년 문을 연 금호문화회관은 2001년 문을 닫을 때까지 광주 문화의 요람이었다. 한옥을 차용한 건물과 푸른 잔디가 어우러져 독특한 멋을 풍겼던 이곳에선 많은 공연과 행사가 열렸다.

고등학교 시절 송승환의 팬이었던 친구와 '일어나라 알버트'를 보고 감동에 빠졌던 일이나 손성권의 '빨간 피터의 고백'을 관람하며 배우의 연기에 감탄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당초 회전기공 소유였던 금호문화회관 건물은 호화주택에 걸려 입주가 불가능했다. 지방 청와대로 팔려 했지만 주택가에 위치, 경비상의 문제로 여의치 않았고 아파트 업자에게 팔려 헐릴 위기에 처하자 금호가 매입해 문화공간으로 만들었다. 최근 서울의 소극장 '학전'이 경영난과

김민기 대표의 암 진단으로 33년만에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들렸다. 서울에 갈 때면 학전에서 '지하철 1호선' 등 많은 작품을 봤던 터라 폐관 소식에 옛 추억들이 떠올랐다. '아침이슬'을 만든 김민기가 1991년 문을 연 학전은 대학로 소극장 문화를 대표해온 공간이다. 특히 4000회 공연을 이어간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은 설 경구·김윤석·황정민·조승우 등 쟁쟁한 배우들이 거쳐간 명작이다.

지금 상영중인 '버티고 존재하기'는 88년 역사의 광주극장에 서 활영했다. 최고은, 아마도이자람 밴드 등 뮤지션들이 광주극장의 역사

실, 대표실 등에서 노래하며 영화와 버티는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관람 내내 경제논리에 밀려 60년 역사를 뒤로하고 최근 철거된 원주야구테마극장이 떠올라 더 애뜻했고 클래식 음악감상실 '베토벤'처럼 버티고 있는 또 다른 공간들도 생각났다.

사라져 버린 공간은 지켜야 쌓인 역사와 추억도 함께 가져가 버린다.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 흔적만이라도 기록해둬야 하는 것이 남아있는 이들의 최소한의 의무다. /김미은 여론매체부장 mekim@

사라지는 것들

기 고

다시 시작하는 도전

을 위한 희생과 양보가 있어야만 원정의 성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점점 편한 것만 추구하며 갈수록 낙약해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시대정신의 전환적 쇄신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한 가장 실현성 있는 처방 중 하나가 산악 등반을 통한 도전정신의 함양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정보통신의 발달과 높아진 경제력으로 도전의 발판은 충분하지만 번거롭고 위험하고 힘든 일에 누구도 먼저 나서고 싶어 하지 않는다.

1976년 창립해 올해로 47주년이 되는 조선이공대학교 산악회(이하 조선이공대 산악회)는 세계적 알파니즘 전통을 계승한 산악회이다. 학교 동아리의 하나로 재학생일 때 등산의 기초를 배운다. 졸업 후에는 자신의 진로 선택에 따라 전문 등반가의 길을 가는데, 조선이공대 산악회는 단일 산악회로서 가장 많은 산악인을 배출한 산악회로 유명하다.

1990년 카라코람 히말라야의 낭기파르바트(8125m)에서 정성백 대원을 잃은 조선이공대 산악회는 한 번도 꾸리기 힘들다는 8000m봉 원정을 세 번(1992년·1997년·2005년) 도전하는 한국 등산사의 진기록을 세웠다. 이후에도 세계 최초 산악 실업팀인 2001년 한국도로공사 산악팀 장단의 산파 역할 등 조선이공대 출신 산악인들의 많은 도전은 한국 등산사를 풍부하게 만들었다.

지난 7월, 광주·전남 지역에서 단일팀으로는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광역 히말라야 7000급 봉우리 원정

대가 꾸려졌다. 그리고 너무 오래되어 기억조차 가물 가물한 원정보고서 발간과 원정보고회라는 행사가 열렸다. 바로 조선이공대 산악회의 지난 11일 '조선이공대학교 개교 60주년 2023 레닌피크(7134m) 원정보고서 발간 기념회 및 원정대 보고회'가 주인공이다. 광주·전남 히말라야 '도전 50년 나아가길 50년 이어갈 100년'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우리 지역 알피니즘 도전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자리를 매김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장창수 원정대장은 보고회의 총평 말미에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아닌 산악회 차원에서 '스노우 레오파드'(Snow Leopard·구 소련 7000m 이상 5개 봉의 별칭) 완등을 목표로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일 것 같다"면서 다음 원정 대상지로 광주·전남에서 최초로 도전하는 코르제네프스카야 봉(Korzhenevskaya·7150m) 원정을 제안했다.

인류 무형문화유산이 된 알피니즘이 대가 끊기는 실전(失傳)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조선이공대 산악회의 이러한 전통적 알피니즘 추구 행위는 잡자고 있는 우리만의 도전정신을 일깨우기에 충분하며 시의적절하다. 1971년 마나슬루(8163m) 원정부터 시작된 광주·전남 히말라야 도전의 50년 역사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며 새롭게 나아가길 그 100년의 길에서 조선이공대 산악회가 주도하는 알피니즘의 재 도전을 응원하고 기대한다.



문종국 선안문등산학교장

건강과 여가를 위해 산을 오르는 수많은 산악회가 있지만 산악인들에게는 좀 더 깊은 뜻이 있다. 해발 3000m 이상 고산을 오르는 등산을 '알피니즘'(Alpinism)이라고 한다. 과거 미지의 세계인 히말라야의 고산을 오르기 위해 목숨을 걸고 도전했던 알피니즘은 지성의 발로라 할 수 있는데 지성 역시 늘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기 때문이다.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된 이러한 지성인의 모임이 산악회(Alpine Club)였고 그 지성인을 산악인이라 부른다.

시대가 변하면서 알피니즘 등산은 세계적인 침체를 맞고 있다. 히말라야 등반은 개인주의화된 현대에서 시эт랄로 '내돈 내산'식의 혼자 좋아 떠나는 개인 도전이 된 지 오래다. 그러나 알피니즘의 가치는 전통적으로 개인보다는 팀 워크에 있다.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혼자가면 빠르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간다'라는 협력의 가치를 가장 극명하게 가진 행위 문화이다.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팀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 시청 별당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편집 부 220-0649	문화 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정치 부 220-0652	예향 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 부 220-0663	사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 부 220-0664	체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